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7월 5일(월) 총 4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인천대공원 사업소	담당자 • 시설담당 박숙현 ☎440-5821 • 담당자 김대연 ☎440-5823, 박정환 ☎440-5826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래습지생태습지공원 경관특성화를 위한 여가녹지(가칭 ‘연꽃공원’) 개방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7월 7일부터 “소래습지생태공원 여가녹지 조성공사” 를 마무리하고 시민들에게 공원(가칭 ‘연꽃공원’)을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방되는 공원지역은 소래습지생태공원의 북측 관문으로서 1996년 염전을 폐쇄하고 독을 쌓아 바닷물 유입을 막은 기수지역으로, 지난 2000년 공원(소래습지생태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조성이 지연되면서 일부 주민들의 무단 경작으로 인한 악취와 경관 저해로 수많은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이다.

인천광역시에서 2019년 이 지역에 대한 토지 보상을 마무리 하고, 같은 해 경관 특화 공원조성사업을 추진을 위한 국토부 여가녹지 조성 국비보조 사업으로 선정돼 40,000㎡ 면적에 연못 3개단지를 조성하고 연꽃

8,350주를 식재하였으며 주민편익시설인 정자와 원두막 등을 설치했다.

또한 설계 단계부터 소래습지생태공원의 정체성인 습지와 연꽃을 테마로 하는 경관특성화 공원을 계획했으며, 특히 인근 만수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방류되는 재이용수 활용은 유한(有限)한 자원을 재활용해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토록 계획했다는 점에서 환경특별시 인천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됐다.

공원 옆에 위치한 서창에코에비뉴아파트의 주민대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불법 경작으로 인한 악취 문제가 해결됨은 물론 경관이 개선돼 주민 모두가 좋아한다” 라고 말했으며,

서치선 시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소래습지생태공원 여가녹지 조성 사업은 자원을 재이용하고 공원에 특성을 부여해 특화시켰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번 개방되는 여가녹지와 함께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생태전시관 앞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많은 시민들이 여가와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습지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붙임> 관련 사진

사업전 현황사진



사업후 현황사진

